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티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데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오즈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경 토니 (안토니오)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음악과 테니스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 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김 770-634-5646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조앤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art 건너편,
 (파비야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TOP Lawn Maintenance
조경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Suwanee ORTHODONTICS
스와니 교정 치과
 교정전문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Elevate Your Smile
 0% Interest | 주말 예약 가능 | 카톡 상담 (suwaneeortho)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매운 음식은 습니다
T. 770.454.5640
 592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십자가, 선상, 금, 은, 주문제작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리-셔츠 프린팅
 Suwanee Wal-mart 내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박지연 부동산
 770-687-0750
 Homewithjulia@gmail.com
 박지연 실비아
 Virtual Properties Realty
 집찾는 마법사 YouTube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com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 2099호 2021년 6월 13일 | 연중 제 11주일 | 발행인: 이영석 세례자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
 오후 1시 (영어미사) 매일
 첫째, 셋째 주일 봉헌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20분 전
-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월: 휴무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5시
- † 본당신부
 이영석 세례자 요한
 Johann Young-seog Lee, S. J.
 20seog@hanmail.net
- † 사목회장
 성정창 폴젠시오
 Fulgentio Jeong Seong
 470-296-1030
 kmccga.seong@gmail.com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 마르코 4,26-34 >

성 가 입당: 421 봉헌: 220/511 성체: 159/160/498 파견: 200
 제 1 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7,22-24 <낮은 나무는 높이리라.>
 화 답 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 2 독서 코린토 2서 5,6-10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 4,26-34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
 진다.>
 영 성 체 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병 중에 계신 분들

- 김미영(인덕마리아)
- 김송옥(데레사)
-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 민병숙(라파엘라)
- 박덕자(빅토리아)
- 박정자(데레사)
- 박평하(요한)
- 유옥희(모니카)
- 이금숙(세실리아)
- 이수진(브렌다노)
- 이창옥(크리스티나)
- 조경희(글라라)
- 채종현(아오스딩)
- 최대일(프레드릭)
-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1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 구역분과 고영호 770-827-9987
- 성모회 이남수 770-310-4546
-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 예비신자 교리반 나상숙 678-933-7313

선교분과

박순기 678-793-5881

- 레지오 마리아 왕희숙 352-359-4283
- 성령기도회 오영숙 404-518-5881
- 울뜨레아 이경환 678-713-4650
- M.E. 손영덕 678-896-1837
- C.L.C. 이형주 404-409-1220

● 우수상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겠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이었다. 병원 근무 중에 나는 무작정 집 근처 신갈 성당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수화기 너머 남자 분이 당황하신 듯 이것저것 내게 물었다. 그러나 나는 천주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냥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밖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주부터 새 신자반이 시작되니 오전 9시까지 성당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저녁에 나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나의 말을 들은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하였다. “갑자기 왜 성당이야?”

그 시절 나와 우리 가족은 미국 이민을 결심하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민 agency는 우리에게 꽤 호의적이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였지만 왜 인지 서류는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남편은 서류 접수 후 회사에서 꽤나 일이 잘 풀리고 있어 나는 ‘꼭 가야하나?’라는 생각에 속이 꽤나 시끄러웠다.

하루는 문득 한 환자의 병실을 지나가다가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십자고상이 눈에 들어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수님,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속에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올라 왔었다. 며칠 뒤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또 속이 시끄러워지고 머리도 아파 왔는데 그 때의 편안함이 떠올라 일부러 성당 앞으로 돌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성당의 한쪽 벽면은 부활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 손을 활짝 벌리고 계신 모습이 나에게 ‘얼른 나에게 와서 안겨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다.

나는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친구는 취업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할 정도로 신실한 천주교 신자다. 친구는 나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하며 우선 집 근처 성당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라고 하였다. 하지만 쉽사리 전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나에게 운명. 그렇게 나와 신앙은 신갈 성당에 새 신자반에 등록하였다.

거기 계셨던 봉사자들과 수녀님도 우리 부부를 신기해 하였다. 천주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어릴 적부터 개신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나의 엄마는 독실한 개신교 집안의 딸이며 엄마 역시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녔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에 가지 않았다. 모태 신앙의 힘은 참으로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나는 나의 삶에서 중요한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일이 있을 때나, 아빠가 아프거나, 대학원 논문이 잘 안되거나 하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가 기도를 했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모든 일이 잘 되었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

이번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가?’하는 고민을 할 때에 그 십자고상이 눈에 들어왔던 것도 운명. 새 신자반에 다니면서 나는 나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재미를 찾았다. 교리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계속 되었지만 그 교리 공부

그렇게 재미 있었다. 단 한 가지 목주기도만 빼고. 5월 셋째 주에 시작된 새 신자반은 4개월이 지나 목주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개신교를 다녔던 나는 목주기도가 그렇게도 이상했다. 성모님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성모님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래서 열흘이 지나도록 나는 목주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대신 듣나는 대로 웹사이트에서 목주기도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찾아보고 하였다. 그 유래와 초기의 형태, 그 뒤의 변화, 그리고 목주기도의 놀라운 신비 등등.

개천절에 우리 가족의 미국 이민이 승인이 났다. 나의 마음은 다시 복잡해졌다. 그 당시 나의 업무는 꽤나 비전이 있었기에, 미국에서는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기에 지금의 커리어가 나의 미국행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다시 병동으로 가야 하나 등등. 그래서 나는 목주기도를 한 번 그려 보기로 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무릎을 꿇고 기도문 등을 조금씩 커닝하면서 나는 성모송을 줄줄 외었다. 그 순간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일을 겪었다. 머리에 얽혀지는 손길과 그 손에서 나오는 뜨거운 기운이 머리를 타고 내려와 무릎을 꿇고 앉은 나의 향문을 통하여 빠져 나가는 느낌. 나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뭐지?? 뭐지??

기도를 멈출 수 없기에 나는 계속 기도를 줄줄 읊었다. 그러나 책이나 티비에서 보던 성모님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 그런 것은 없었다. 밖에서 아이들이 웃고 얘기하는 소리는 변함없이 계속 들렸고 나도 수시로 땀 생각도 했었으니까.

하지만 뜨거운 기운이 나의 온 몸에 퍼지는 그 느낌은 온전히 사실이며, 지금까지 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다. 그 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 나는 매일 목주기도를 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간절한 무언가를 원할 때 목주기도를 한다. 지금의 나에게 목주기도가 어디서 유래되었고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목주기도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나의 세례명은 마리아가 되었다. 물론 한국의 성인, 복자 중에서 나에게 영감을 주신 성녀 마리아님이 나의 수호 성인이지만 성모 마리아님 역시 나의 수호성인이다.

끝으로 목주기도의 신비가 우리 가족에게도 있었는데, 그 날은 우리 가족의 미 대사관 인터뷰 날이었다. 그 날 두 명의 영사가 있었는데, 아시아계 여성 영사와 백인 남성 영사였다. 그 여성 영사는 denial을 즐기고 악명이 높았는데, 불행히도 그 여성이 우리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는 간단한 인터뷰만을 한 뒤, 남편 차례가 되자 나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자리에 앉은 나는 불안한 마음에 목주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었다며 남편이 나의 옆으로 돌아왔다. 10여 분 뒤 시스템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남성 영사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 인터넷 시스템 다운은 흔한 일이 아닌데, 누군가는 우리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목주기도의 신비인 걸.

그렇게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되어 목주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지 않는다.

대건한국학교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 모집대상: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 수업기간: 2021년 8월 14일~12월 11일 (16주간)
-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09:15-12:30
-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어사
- 특별과목: 서예/한국화, 미술, 한국무용,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 주요교내행사: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경대회
- 등록일자: 5/1-5/9 (추가등록: 8/14까지)
- 등록금: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교지 \$10포함)
- 등록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이용방법
-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SO GOOD (파티, 웨딩드레스 전문점)



Duluth 매장: 678.474.7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www.sogoodbridal.com
www.sogoodbb.com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30~오후 1:00
(예약 주문/상담가능)

최고의 보험회사와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 병 들었을 때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보험
✓ 확정이자로 10년째 원금의 2배 보장
최미영 헬레나 404-918-042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어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21년 AA 기금 납부 현황 (6월 6일 현재)

교구 할당액: \$57,900

누계 약정액: \$23,070

금주 납부액: \$1,710 누계 납부액: \$31,710 달성율: 54.8%

2021 AA 기금 금주 납부자: 20명

김경숙 김상국 김영길 김영철 김영화 김원봉 김유니스 박재현 박정미 박평하 배정희 서동민 윤성진 이동춘 이상범 이상용 임혜수 전용희 최명섭 최준태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AA 기금 약정을 부탁드립니다.

< 성혈 대축일 성체 조배 >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애틀랜타 대교구에서는 각 교회 공동체의 성체 조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당에서는 6월 4일(금) 오후 1시부터 6월 5일(토) 오후 6시 30분까지 대성전에서 각 구역 및 신심 단체에서 성체 조배를 시행하였습니다.



< 2021 KMCC 사진전 >

6월 6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에 KMCC 사진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대건상: 추지연(안나) 정하상상: 설현주(헬레나), 조보현(프란치스코) 순교자상: 원선미(테레사), 강창미(딤프나), 이계진(모니카) 포토제닉상: 이혁륜(모니카), 김유니스(비비안나), 박경미(스콜라스티카), 노우정(아델라), 이김애자(세실리아)



< 사회복지분과 원예반 모집 >

6월 6일(일) 오후 10시 30분 미사 후에 사회복지분과에서 소성당에서 원예반 가입 행사가 있었습니다.



< 구역장 월례 회의 >

6월 6일(일) 오후 12시부터 소성당에서 월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 성모회 물품 판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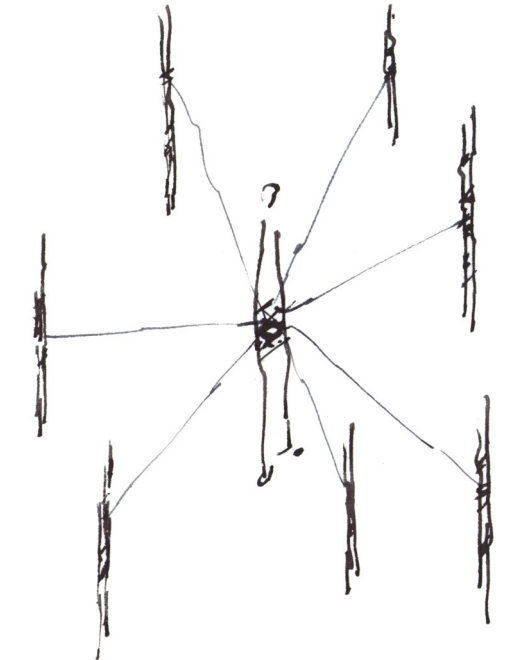
성모회에서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재배된 질 좋은 유기농 식재료를 판매합니다. 참기름, 도토리 국수, 고사리, 병아리콩 등등.



응골지게 걸려들었다.

< 마르코 4,26-34 >

배영길 베드로 신부



꿈작 못하고

걸려들었다.

바둥거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이

응골지게 걸려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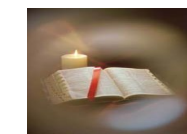
그 사랑 때문에

그 정성 때문에.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의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어릴 적 노래가 콧노래가 되는 요즘이다.

애틀랜타의 유월은 완전한 여름이다. 신록이 부풀어오르고 뭉게뭉게 흰구름은 푸른 하늘가운데 기둥을 만든다. 장마가 없는 대신 자주 시원한 소나기가 장대비로 하늘에서 따루어 내린다. 오늘만해도 호랑이가 장가를 몇번이나 가고 여우도 시집을 여러 번 갔다. 이렇게 이곳의 여름은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마음에 활기를 준다. 힘이 넘친다.

오늘 복음말씀에서처럼 ‘저절로’ 씨앗이 나무가 되고 잎이 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여름 한가



오늘 복음 산책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 마르코 4,26-34 >

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저절로’ 현상들이 일어나고 변화하는데 어찌 그 리되는 것인지 그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상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절로’ 그리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나 일이나 현상안에는 ‘저절로’, 그 속성대로 일이 되어지고 돌아가고 해결된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분이 심으신 뜻대로 ‘저절로’

존재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롭게 되어진다면 고백할 수 있다. 하

느님의 피조물인 나는 그분의 뜻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그분의 뜻이 잘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안다. 지나치게 열심한 노력이나 자기 확신으로 그분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겨자씨가 아름답드리 큰 나무로 ‘저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겸손을 성모님으로 부터 배워야함을 우리는 잘 안다.

성찰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겸손한 태도로 교우들을 받아들이는가?

우리들의 정성 (2021년 6월 6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327명	
특전 미사	44명	오전 8시 30분	79명
오전 10시 30분	163명	영어 미사	41명
성물방	\$ 307.00	감사헌금	\$ 1,060.00
교무금	\$ 7,725.00	주일헌금	\$ 3,659.00
온라인 교무금	\$ 200.00	온라인 주일헌금	\$ 267.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21년 6월 6일)

김면기 (6)	박영자 (6)	양로렌스 (1~12)	임근범 (6)
김병순 (3~5)	박영희 (6)	오상수 (6)	임현준 (4~6)
김상순 (6)	박정미 (5~6)	윤석진 (6)	장춘자 (5~6)
김영길 (6)	배광욱 (6)	윤성진 (6)	전용희 (6)
김영철 (6)	배정열 (6~7)	이강연 (5)	전홍 (9~6)
김영화 (6)	배정희 (6)	이동춘 (6)	정예근 (6)
김원봉 (6)	서동민 (6)	이미현 (6)	정창래 (6)
김준호 (6)	서상희 (6)	이봉조 (6)	조기영 (6)
김태규 (6)	서인원 (6)	이상범 (1~12)	조소춘 (6)
김홍자 (6~7)	서재욱 (6)	이상용 (6)	최명섭 (6~7)
나창섭 (6)	설재규 (6)	이종길 (6)	최준태 (6)
박두환 (6)	손영덕 (6)	이황규 (6)	

금주 후원금

청소년 기금	-
Covid-19 Fund	-
감사헌금	박희자 남현석
Angela Fund	-

미사 위생 지침이

	6/13	6/13	6/15	6/16	6/17	6/18	6/19	6/20	6/20	6/22	6/23	6/24	6/25	6/26
	주일 10: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토 7:00	주일 10: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토 7:00
체온측정 1 (정)	이상용	고영호	김성애	신인근	신은경	김유니스	박희진	이상용	고영호	김성애	신인근	신은경	김유니스	박희진
체온측정 2 (부)	-	-	-	-	-	-	-	-	-	-	-	-	-	-
안내/방역 1 (정)	이영숙	박재석	원선미	이숙자	오영숙	이영숙	유성희	이영숙	박재석	원선미	이숙자	오영숙	이영숙	유성희
안내/방역 2 (부)	이숙자	오영숙	-	-	-	-	연규정	이숙자	오영숙	-	-	-	-	연규정
안내/방역 3 (부)	서상희	원동훈	-	-	-	-	-	서상희	원동훈	-	-	-	-	-
안내/방역 4 (부)	-	남혜원	-	-	-	-	-	-	남혜원	-	-	-	-	-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6/12 (토) 오후 7:00	고승찬	허재 신경아	-
6/13 (일) 오전 8:30	이진화	이종길 이은경	-
6/13 (일) 오전 10:30	이경환	이국진 이정란	-
6/19 (토) 오후 7:00	이재돈	유성희 곽예원	-
6/20 (일) 오전 8:30	김현숙	서상희 서정원	-
6/20 (일) 오전 10:30	박미셀	박재현 박줄리	-
6/20 (일) 오후 1:00	Gabe Choi	Chris Shin	-

예수회 후원회 줌 강의 안내

1. 6월 7일 (월) 밤 9시- 이곳 시간
정제천 신부-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기

2. 6월 14일 (월) 밤 9시- 이곳 시간
손우배 신부- 일상에서의 영적 위로와 실망

줌 ID: 979 720 4403W
비밀 번호: 1https://us02web.zoom.us/j/9797204403?pwd=WEtHKOllaWZmTWtmTnhPUiVqRmlGUT09

◆성모회 물품 판매

성모회에서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재배된 질 좋은 유기농 식재료들을 판매합니다. 참기름, 도토리 국수, 고사리, 병아리콩 등등. 판매장소- 주차장내 장터 판매대

나의 순교 일지 2021년

일시: 2021년 11월 27일 (대림 1주일 전날)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을 맞아 일상 안에서 ‘작은 죽음’을 살아가며 ‘순교 영성’을 살아 가기를 초대합니다.

▶2021년 11월 28일(대림 1주일) 교중 미사 때 ‘순교 일지’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문의: 이숙자 (678-665-3882)

제 21차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

주제: 자캐오야 얼른 내려 오너라

지도: 정만영 콜베 신부

일시: 8월 8일 (일) - 12일 (목) 4박 5일

장소: St. Ignatius House

참가비: \$530 (인원: 선착순 22명)

문의: 이형주 스텔라 (404-409-1220)
박철민 리나 (404-510-4604)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성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교우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뒤쫓아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은 도라빌의 저희가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사랑 가득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소서. 그 마음으로 쉬는 교우를 찾는 순간까지,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는 평신도 사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겸손한 마음을 나눠주소서. 여러가지 사연으로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쉬는 교우들이 저희의 작은 실수로 인해 당신한테서 더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용서를 청할 것이 있으면 먼저 청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님, 길 잃은 양을 찾는 이 험난한 여정에서 혹시나 잃어버렸을 지도 모를 저희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과 하나 되었던 세레 때의 약속과 감동을 상기시켜 주시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쉬는 교우들과 함께 당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와 함께 기뻐하며 구원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2 차 성체 신심 세미나

주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 6,48),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일시: 6월 27일 (일) 오후 7:30-10:00
6월 30일 (수) 오후 7:30-10:00
(세미나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이 있음)

방법: zoom

지도: 서울 가톨릭 대학교 교회법 대학원 교수 지용식 마태오 신부, 이동식 발다살 신부 (동남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지도사제) 및 봉사자

대상: 모든 교우

참가비: \$40.00 (선착순 100명)
(PAYABLE TO: “KCCRSC-SE”)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신청 마감: 6월 20일 (선착순 100명)

문의: 이영숙 테라사 (770-625-0787)
오영숙 수산나 (404-518-5881)

주최: 미 동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시니어 프로그램 안내

1. 은총쓰기반 2. 목상 컬러링반
3. 원예반(선착순 20명)
* 모든 교재및 부재료 무료 제공

모집기간: 5월 16일부터
클래스 시작: 6월 첫째 주부터
문의: 김유니스 (770-500-7007)

한국 천주 교회사 공부반 모집

모집기간: 5월 16일~6월 20일
수업방식: Zoom으로 시작
문의: 지혜경 (770-380-1327)
adelabig4@gmail.com

◆온라인 봉헌 안내

1. 온라인 봉헌을 해주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봉헌 내역(교무금, 주일헌금, AA 기금, 감사헌금, Angela Fund, Covid-19 Fund 등)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면 감사하겠습니다.

2.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님의 평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크신 보살핌 덕분에 큰 불상사 없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4월28일, 애틀랜타 대교구는 코로나 기간 지속한 미사관면을 성령강림대축일 (5월22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성당 교우분들의 백신접종

◆5월22일 성령강림대축일 미사부터 신체건강한 교우들은 대면 미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미사참석자는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본당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성체는 입으로도 영할 수 있습니다. 단, 손 영성체가 끝난 후 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중 성가 합창은 계속 중지하며, 교우간의 신체접촉 또한 계속 금지합니다.

현황을 살핀 후, CDC의 방역수칙과 교구의 전례권고를 바탕으로 본당 미사전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